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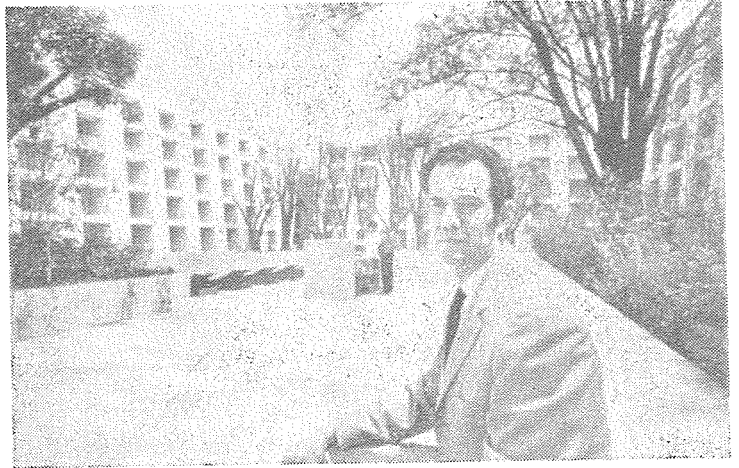
현대 생활 과 호텔

Time Oct. 11, 1968

멕시코의 오아시스

멕시코시의 최신 호텔인 2천 4백만달러의 Camino Real은 첫눈으로 보아서 마치 요새처럼 보인다. 학생들이 군인들과 충돌을 하고 있는 때였으나 투숙하고 있는 손님들인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들이 안도의 숨을 쉬게 할 수 있었다. 건축가 Ricardo Legorreta가 처음 그 호텔을 설계 했을 때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Ricardo Legorreta가 호텔을 설계한 목적은 떠들썩하고 먼지 투성이인 이 시 가운데에 푸른 숲과 고요한 오아시스를 단순히 창조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Legorreta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거리고 밀채이므로, 호텔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손님들에게 공간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소외하게 하는 데 있다."

Camino Real 호텔은 유행에 민감한 큰 거리에서 몇 블럭 떨어져 있으며 방들은 멕시코시의 큰 Chapultepec공원과 별 보잘 게 없는 약간 초라한 주위를 내다 볼 수 있다. 그 대신에 벽돌벽은 5층 높이로 올라가 있고 또 750개의 방에서는 정원과 반짝이는 수영장이 있는 풍경화같은 스페인식 뜰을 전부 안쪽으로 내다 볼 수 있다. 건축주는 국제호텔의 주인으로 멕시코 시에서 좀 달리 지어 보려고 했다. 멕시코의 서국제호텔의 사장



인 José Brockman이 말하기를 "호텔이 높으면 낮은 호텔보다 비용이 3배가 더 들며 길게 지으면 2배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Camino Real호텔은 올림픽과 때를 맞추어 준비했기 때문에 낮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방문

Legorreta는 자기의 설계 아이디어가 훌륭한 것이었다는 특유의 웃음을 띠우면서 말하기를 "Brockman씨는 훌륭한 단골 고객이지만 우리들은 많이 싸웠다"고 말한다. 거대한 소용돌이는 입구의 광장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어렁거린다. 자동차가 도착하면 경사진 주차장 한 모퉁이로 바로 갈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손님들이 커다란 현관부도에서 숙박부를 기재한다. 호텔의 대부분은 안팎을 모두 거친 플라스틱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예술작품이란 대중의 장소를 활기 띠게 한다, 그러나 이 호텔은 멕시코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색인 핑크, 노랑, 자색으로 벽 전부가 칠해져 있다. 칩실도 보통 이상으로 커서 14ft.에 23ft.이며 복도의 넓이도 10ft.나 된다.

호텔이 안쪽으로 직면하고 있어서 바깥 이웃과는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Legorreta는 말하

기를 "이 호텔은 배와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벽 바깥의 공백은 내부를 단지 보호할 뿐이다"고 말한다. 사생활을 특별히 배려해서 손님들의 방은 복도나 회의실, 세계의 식당, 일곱개의 바에서 나는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했다.

이러한 분산된 배치는 손님들이 그들 방까지 가는데 오래동안 걸어야 하는 큰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멀리 앉아 방까지 식사를 날라다 주는 서 서비스가 있어야 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호텔의 각 마루에는 언제나 운반용 손수레가 준비되어 있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부엌과 계속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관의 홀 복도는 손님들이 즐겁게 걸어가면서 정원과 수영장을 훑어 볼 수 있고 또 보고 놀라도 될 설계되어 있다. 멕시코 대통령 Gustavo Diaz Ordaz는 그 호텔을 둘러보는데 걸어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25분간의 방문 예정 계획을 90분이나 소비했다.

올림픽이 수일 내로 임박하자 Camino Real호텔은 예약으로 전부 계약이 되어 있었으며 또 숙박부는 다 치 국제 인명사전을 읽는 것과 같았다.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애브리 브런디지도 있었는데도 Camino Real 호텔을 극구 찬양했다.